

주말경제

Economy

■40세 맞벌이 부부, 아이 교육자금·노후 대비는?

월 30만원 '변액연금보험' 60세엔 4억 보장

Q 40세 맞벌이 부부로 둘 다 일반 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는 1남(12살) 1녀(10살)인데 애들 교육비 마련 전략과 노후 준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박씨 부부의 경우 맞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의 적절한 자산규모는 연령법칙에 따르면 1억9천2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자산규모는 이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다만, 부부가 맞벌이를 통해서 꾸준히 소득을 창출해 나간다면 운용방식에 따라 그 결실은 중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박씨 부부의 현금흐름표를 분석해보면 소득대비 가계 성지출(생활비, 용돈)이 38%를 차지하고 있어 낮은 지

감안한다면 최대한 빨리 간접투자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갯돈을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노후에 대한 준비는 당분간 불입중인 연금보험 50만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저축이라고는 매달 넣는 갯돈 30만원이 전부인 상황에서 추가로 노후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는 한 쌍의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다양하게 제시한곤 한다.

주택담보대출 더 늘려 고율 마이너스대출 갚아라 여유티 펀드 적립식펀드 가입 두아이 학자금 대비해야

어린이펀드 인기

어린이 펀드와 일반 펀드는 자산의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동일하게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어린이펀드는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자산을 운용한다.

즉 주식형펀드보다 성장가능하고 안전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둘째,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제교실이나 영어캠프 심지어 진로·유학 설명회 혜택도 주어진다.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투자와 펀드 등의 용어에 익숙해지고 직접 투자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축물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월 대출금 상환액이 82만원이나 되는 것도 미래 자산형성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은 가계성 지출 및 월 대출 상환액을 줄이고 저축 및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투자가능자금이 있어야 이들이 원하는 자녀교육비 및 부부의 노후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점 때문에 갯돈을 활용하고 있는 듯 보이거나 위험성 및 투자 대비 수익성을

노후자금으로 5억원을 예로들면 지금부터 60세까지 매월 적립해야 할 금액은 약 126만원(금리 5%, 저축기간 20년) 정도로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적립방식이 장기 간접투자일 경우 5억을 준비하기 위한 월 불입액은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씨의 경우 현재 불입중인 정액형 연금은 지속적으로 불입하고 향후 갯돈의 불입이 끝나는 시점에 30만원을 투자형 연금상품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노후대책일 것이다. 이렇게 60세까지 불입한다면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이번주 재테크 자문단>



강원복CFP (하나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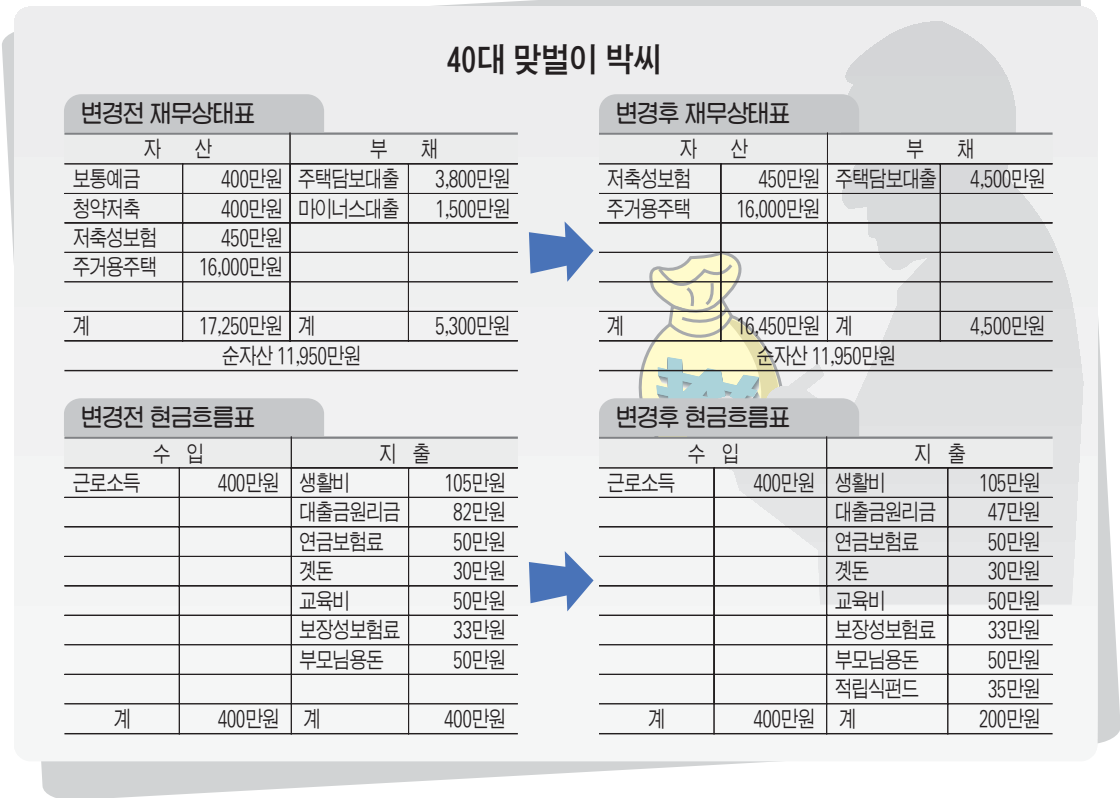


조은형CFP (대한생명)



이명신AFPK (ING생명)

- ◇이번주 상담자 : 강원복CFP(하나은행), 조은형CFP(대한생명), 이명신AFPK(ING생명)
- ◇재산 리모델링 신청방법(신청서 연락처 기재)
- ▲이메일을 통한 신청방법 : chy69016@naver.com, bungy@kwangju.co.kr
- ▲팩스를 통한 신청방법 : 062)524-4187, 062)222-4918
- ▲'다움카페'를 통한 신청방법 : www.cafe.daum.net/fpforum(광주FP포럼)



마련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노후를 위한 대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주택담보대출로 마이너스대출 갚고 여유티 펀드 적립식 펀드=박씨의 경우 큰 자녀의 대학 입학시까지 약 7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 자녀 대학교육비를 준비하는데 7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이미 대학교의 1년 교육비가 1천만원을 훌쩍 넘어서 버렸다. 최소 1인당 4천만원, 두 자녀의 대학 교육비 8천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얼마 전 모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을 위한 투자금융상품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방송의 여파로 거의 전 증권사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하는 어린이펀드라는 이름의 간접투자상품이 봇물 쏟아지듯 출시됐고 많은 부모들이 앞다퉈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상품들의 장점은 적은 금액으로 긴 시간동안 투자하면 많은 금액의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 세대들은 교육비나 노후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잘 키우고 잘 사셨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까. 그건 바로 심화된 경쟁사회와 출산을 하라 및 길어진 수명때문일 것이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남들보다 뭐라도 한 가지 더 가르치기 위해 교육비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심지어는 노래방 도우미를 해서라도 학원 한군데 더 보내려고 노력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듯 교육비에 대한

요즘 부모들의 생각이 관대하듯 박씨의 경우도 자녀 교육비 준비를 등한히 할 처지는 아닌 듯 하다.

하지만 현금흐름표상 따로 자녀 교육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다. 어디선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용돈을 줄일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한가지다. 마이너스대출과 담보대출 상환에 매달 들어가는 82만원에서 여유티 펀드를 만들어보자. 고율의 마이너스대출을 모두 갚고 상대적으로 저율인 주택담보대출을 그 금액만큼 추가로 받는 것이다.

장기분할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월 불입금이 47만원 정도로 줄어들어 자녀들을 위한 투자가 가능 금액이 약 35만원 생길 것이다.

이 금액을 장기간접투자상품인 적립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그 수익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교육비 준비는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번 세워진 재무계획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국내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나 가계의 재무적 상황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본적인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 투자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변경된 재무적인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계획과 목표를 수정해줘야 한다.

/정리=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유해조수 구제, 멧돼지 잡는 공기총 출현

최대 3배율 확대 동축식(대형) 1000배 해상능률 4배 확대

연중 사용가능, 동 치유보관 가능, 모든용 용어변경 철저 판매

보통형(대형) 1000배, 대형형 1500배

계림총포무역

062-622-6077, 062-7560

연도비가 학력으로 절감되는 난방

“효율도” “편의성” “실용성”이 책임집니다.

1. 난방비 절감 (연도비 절감)

2. 편리성 (원격제어, 자동제어)

3. 실용성 (다용도, 다목적)

(주)태양에너지 | TEL: (062) 262-0101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국·과·직·별·공·보·수·복·정·지·고·성·급

전남고시학원 | 0622-9115

중개사 특강

소수정예반

전남고시학원 | 0622-9115

공인중개사

2.1 부동산

주목관리사

광주고시학원 | 0622-9115